

종교계 생화 사용으로 힘든 화훼농가 돕는다

aT, 부활절 꽃꽂이 행사
성당·교회 계란값 올라
계란대신 꽃·떡 나눠주기



부활절을 맞은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 화훼공판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늘었다. 사진은 이날 화훼공판장에 전시 중인 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부활절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계란 대신, 꽃과 떡 등을 나눠주는 이색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화훼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규모 전시 행사를 열었다. 부활절인 16일 서울 aT화훼공판장 생화매장에 부활절 꽃꽂이 행사가 열렸다. 부활절은 교회력 절기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국내 각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꽃꽂이를 특별하게 준비하며, 관련 화훼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기간이다. 부활절의 상징색은 생명과 회복,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흰색으로, 성전장식에는 기독교의 꽃이자 순결한 그리스도를 뜻하는 나팔백합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 외에도 백색계통의 꽃인 백합, 백장미, 칼라, 스톡 등, 부자재료는 조팝나무, 설유화, 명자란 등을 주로 사용한다. 부활절 꽃꽂이가 전시중인 aT화훼공판장 생

화매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꽃꽂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서툴다면, 매장 내 전시된 상품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활절의 상징과도 같은 계란 가격이 올라 꽃을 찾는 사람이 더욱 늘었다. aT에 따르면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750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개월 전 가격 7284원보다 225원 오른 것으로, 1년 전 가격 5150원과 비교하면 46% 급등했다. 평년(5590원)에 비해서도 34% 비싸다. 이에 성당과 교회 등이 계란 대신, 떡이나 양초, 꽃 등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aT 심정근 화훼사업센터장은 “종교인에게 1

년중 가장 중요한 부활절에는 조화가 아닌 생화로 성전을 장식하여 기쁨과 축제의 의미를 더하기 바란다”며,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과 화훼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향후 더 많은 종교시설에서 우리 꽃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평동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광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해마다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평동농협은 이날 대학생 조합원 자녀 18명에게는 1인당 1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고등학생 조합원 자녀 7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900만원의 장학금 전달하였다. 김익찬 조합장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



2017년 조합원자녀 장학금 수여식. 2017. 4. 7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해마다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평동농협은 이날 대학생 조합원 자녀 18명에게는 1인당 1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고등학생 조합원 자녀 7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900만원의 장학금 전달하였다. 김익찬 조합장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

농협전남본부 본격 영농철 해남서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4일 해남군 황산면 일원에서 전남농협 임직원과 해남 관내 농협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하는 '2017년도 전남농협 영농지원 발대식'과 '깨끗한 농업·농촌 만들기 캠페인(Clean Agriculture Campaign-CAC)'을 했다. 이번 영농지원 발대식은 전국동시 범농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범농협이 하나되어 영농지원을 다짐하는 순서와 농가소득 증대의 물꼬를 틀 영농지원 차량 전달식 및 양파재배 농가 농촌 일



농협전남본부 본격 영농철 해남서 '영농지원 발대식'. 이번 영농지원 발대식은 전국동시 범농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범농협이 하나되어 영농지원을 다짐하는 순서와 농가소득 증대의 물꼬를 틀 영농지원 차량 전달식 및 양파재배 농가 농촌 일

손돌기로 이뤄졌다. 또 전남농협 임직원은 일손 돕기 후 인근 해변마을을 방문하여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주관하는 농촌마을 환경정화 활동인 'CAC'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진 역량강화 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지난 13~14일 '간부진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다. 워크숍은 변화하는 영농환경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간부진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민관협력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개발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기존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영농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승 사장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4차 산업혁명 등 공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응해 공사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도 농기원, 농가소득 증대 업무협약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 상황실에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남농협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업무협약·교류협약(MOU)'을 위한 체결식을 했다. 이날 범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기술정보 공유 등

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품목별 경영체 육성·조직화 및 청년 창업농 육성,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개척, 친환경 단지 조성 협력 등 총 9가지 협력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전남 관내 전 시군 농협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간의 협약식도 예정되어 있는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농업·농촌 살리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환율 리스크 한숨·대북 리스크 주목
수출경기 회복·실적개선 예상
IT·소재산업 등 대형주 확보 기회

미국증시 부진속에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정책대담 약화로 미국증시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속에 주 초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며 주변 긴장감이 높아졌고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 3월말부터 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오다 7일 하루만 507억원 순매도하며 투매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고 코스닥지수는 2%넘게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냉각됐다.

주 후반 미국의 북한폭격설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코스피지수가 2150선까지 근접하기도 했지만 지정학적리스크와 환율보고서 부담으로 금요일 다시 하락하며 마감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발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시리아 및 아프간 폭격을 감행하고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머무르며 대북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대북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과 변동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연초부터 3월말까지 5조48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달 들어 4910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4월 순매도 전환은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리스크에 따른 공격적인 순매도로 보기에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트럼프의 정책대담 약화로 글로벌증시의 숨고르기 양상과 달러강세 둔화로 원달러환율 추가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 결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정학적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현물을 대량매도하거나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주 외국인의 급격한 포지션 변화가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주에도 단기적으로 국내증시의 방향성과 주도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대북리스크와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과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사례를 본다면 단기적인 급락 이후 급등하며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시장의 여건도 단기적으로 대북리스크가 부담스럽지만 한국수출경기 회복과 내수시장의 저점통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호전과 함께 2분기에도 실적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과 경제여건 모두 개선되는 강세장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스피주 조정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보다는 조정시 시장주도주인 IT 및 소재산업 등 핵심 대형주의 물량확대 기회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한 순매도로 일관하던 기관이 지난주 5일 연속 순매수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시장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 (시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점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이상 / 문선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